

日本佛像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影響

鄭 永 鎬

(한국교원대학교)

< 목 차 >

- | | |
|----------------------|---------------------|
| I. 序 說 | IV.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불상 |
| II. 일본에 傳해진 한국불상 | V. 結 語 |
| III. 일본에서의 한국인 造成 불상 | |

I. 序 說

韓國은 아시아 東北端의 滿洲로부터 南쪽으로 뻗어내려온 半島國家이다. 그러므로 大陸의 영향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받았으니 古代로부터 文化的인 영향은 물론이고 때로는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大陸으로부터 文化를 海洋으로 전하는 교량적인 역할이 또한 컸었던 것이니 先史時代부터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많은 文化를 일본에 전하고 심어준 것은 한국이었던 것이다.

예컨대 新石器時代의 土器文化와 靑銅器時代의 農耕文化인 「벼농사기술」 과금등의 사실이 일본 九州의 여러 유적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近年에 이르러 일본에서의 考古學의 발굴 조사에 의하여 九州지방에서 뿐 아니라 일본 중심부인 近畿지방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우리의 조상들이 九州지방으로 건너가서 모든 선진된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현재 九州大學 명예교수 겸 九州歷史資料館 館長인 田村圓燈씨와 九州大學 考古學教授인 西谷正씨등의 연구에 의하여 점차 굳혀지고 있다.

歷史時代에 이르러서도 漢文字와 學問, 佛敎등 모든 文化를 전해준 것은 한국이었으나 오늘날 일본 각지에 그 유적과 유물, 흔적등이 많이 남아 있어 뜻있는 일본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일본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지않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는 對馬島이다. 對馬島의 北쪽 끝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48km인데 對馬島와 일본의 本州와는 160km가 넘는다. 그러므로 先史時代부터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모든 文物이 한국과 거의 같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말이다. 심지어는 生物에 이르기까

지 한국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대마도의 살쟁이, 사슴, 고려평등이 그러하며 270여년전에 멸종되었다는 멧돼지도 일본의 멧돼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新石器時代의 櫛文土器文化는 곧 일본의 繩文土器文化에 해당하는데 대마도의 越高 유적이 1976년도에 발굴 조사되어 한국의 釜山 東三洞貝塚에서 보이는 토기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다. 이후 彌生時代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석기와 토기들이 대마도의 각 유적에서 발견 조사되어 현재 嚴原의 對馬歷史資料館이나 峰町の 海神社 寶物殿등에 수장 진열되어 있다. 이러한 先史時代의 한국의 유적 유물은 對馬島뿐만 아니라 구주의 각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니 福岡, 佐賀, 長崎등의 연안은 그 대표적인 지역이다.

福岡 지역에서는 板付유적을 말할 수 있으니 이곳은 福岡 공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御笠川변의 通度寺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 최초의 畚耨유적으로 유명하다. 이곳 유적에 대해서는 1951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돈된 관개시설을 갖춘 벼농사 유적지임이 밝혀졌다.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의 영향만으로 시작되는 작업은 아니다. 그것은 연중 계획적인 노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익힐 수 없는 기술이며 따라서 벼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벼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近年에 발굴 조사된 古代米가 곧 일본의 板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모든 것이 九州로 건너갔음은 사실인 것이다.

이와같은 벼농사뿐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靑銅器文化도 九州에 정착한 다음 서서히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으니 특히 北九州지방은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그것을 각 지방으로 보내는 門戶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九州 歷史資料館, 北九州市立歷史博物館, 福岡市立歷史資料館, 佐賀縣立歷史資料館등의 각 진열실에서 당시의 한국 土器와 石器, 靑銅器 또는 韓國的 所作인 여러가지 많은 유물을 볼수있는 것이다.

三國時代에 이르러 高句麗, 百濟, 新羅의 선각자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文物을 전해주어서 일본 古代文化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漢(아야)씨와 秦(하다)씨의 본고장은 한국의 남부지방이며 吳織(구레하도리)의 구레는 句麗(구레)에서 나온것인데 후세에 吳(구레)로 바뀌었던 것이다. 秦씨는 畿內지방에서 山城, 攝津, 播磨의 충적평야를 개척하였고 漢씨는 大阪해변의 河內와 內陸의 大和지방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후 538년 百濟로부터 불교가 전해진뒤 일본 각지에는 우리 조상들에 의한 創建佛事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聖德太子가 607년에 法隆寺를 건립했을 때 여기에 蘇我馬子가 상당한 지원을 한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와 때를 같이 하여 秦씨가 京都에 太秦寺(廣隆寺)를 세우고 葛木(城)씨는 葛木寺, 當麻씨는 當麻寺, 難波吉士씨는 大阪에 四天王寺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624년에는 사찰의 수가 46소에 달했고 승려의 수도 38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시대에 속하는 飛鳥時代의 기와(瓦)는 福岡縣의 豊前으로부터 名古屋의 尾張지방에까지 50여곳에서 발견 조사되었는데 이들 寺院의 대다수가 우리 조상들의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 주목되는 것이다.

오늘날 大阪의 野中寺는 한국계 씨족의 창건 사찰로 번창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百濟式의 木塔

址와 金堂址가 잘 남아있으며 특히 「竹の内街道」는 百濟 조상들의 개척로(路)로서 유명하다. 그리고 藤井寺와 辛國神社도 우리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寺刹에서 가장 성스러운 행사는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의 灌佛 혹은 灌頂이다. 灌佛이란 부처님의 머리에 물을 정중히 적시는 작업으로 灌頂이라고도 하는데 이 행사는 본래 印度의 國王즉위나 太子를 책립할 때 행하여진 의식으로서 四大海의 물을 머리위에 끼얹어 祝意를 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灌頂을 행하는 방을 灌室이라하며 灌頂을 위하여 특설된 도량을 「灌頂도량」이라 하는데 이러한 행사가 곧 석가탄신일에 그 탄생하신 모습에 향수를 정중히 뿌리는 灌佛의 행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灌佛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니 百濟에서 일본으로 灌佛器를 전해준 사실이 일본측 기록에 보이고 있어 곧 알수있는 것이다.

즉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材帳》에 의하면 「(前略) 治天下七年歲次 戊午十二月度來 百濟國 聖明王時 太子像并灌佛之器一具及說佛起書卷一箇度而言(後略)」이라 하여 灌佛器一具가 백제의 聖王때 일본에 건너간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佛敎語大辭典》(中村 元著：日本 東京書籍株式會社發行, 1975)에 의하면 灌佛의 행사가 일본에서 최초로 행하여진 것이 推古天皇 14年(606)에 元興寺에서 행해진 灌佛 의식이었다고 하였는데 혹시 당시에 사용하던 灌佛器가 聖王時에 백제에서 보낸 바로 그 灌佛器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물론 百濟의 聖王代와 일본의 推古天皇代는 약 반세기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설사 백제로부터 전해진 바로 그 灌佛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灌佛器를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灌佛器를 사용하였을 것이니 결국 그 연원은 한국이었음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고대의 灌佛器가 전해지는 것이 없으며 최근에 고려시대의 조성으로 추정되는 金銅灌佛盤이 조사되어 學界에 보고되었을 뿐이다.¹⁾

그러나 일본에는 고대의 灌佛盤이 남아있어 당시의 造形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즉 學界에 널리 알려져있는 東大寺의 金銅釋迦誕生佛과 灌佛盤, 東京의 개인소장인 金銅釋迦誕生佛과 灌佛盤등인데 특히 일본의 國寶인 東大寺灌佛具는 誕生佛 높이가 46.8cm인데 대하여 灌佛盤은 經89.2cm, 高15.2cm로 일본 최대의 것이라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東大寺의 大佛開眼會가 행하여진 것이 天平勝寶四年(752) 四月九日로 이 灌佛具도 당시에 造成된 것이라 하여 연대를 奈良時代인 8세기로 추정하고 있다.(사진1, 참조)

개인소장품인 또 하나의 灌佛具는 鎌倉時代인 13세기경의 造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고대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연원의 양식을 추정함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사진2, 참조)

이상과 같이 간단히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고대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古代文化

1) 拙稿：「金銅佛器의 新例—高麗金銅灌佛盤의 推定—」『韓國史學論叢』, 崔永禧先生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7.

를 형성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奈良, 京都, 大阪지방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바 滋賀縣의 石塔寺와 百濟寺, 福井縣 小濱市の 佛國寺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에킨대 石塔寺는 古式의 石塔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붙여진 寺名인데 여기에는 百濟式의 3層石塔이 건립되어있으며 奈良의 般若寺 十三重石塔, 平等院의 十三重石塔등의 典型的인 日本式石塔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滋賀縣 蒲生郡 蒲生町の 한적한 곳에 石塔寺가 있으며 높직한 대지위에 3層石塔을 건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日本の石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

「安定感이 있어 大陸的인 感を 주는 塔이다. 天智天皇 8年(669)에 百濟의 歸化人七百餘人이 蒲生郡에 移住하였는데 이 塔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佛寺를 造營하고 母國의 樣式에 의하여 建立한 것이다. 그러나 供養塔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伽藍經營의 塔으로 造立한 것이다. 奈良時代前期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며 한편 「이 塔은 聖德太子가 建立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寬弘3年(1006)에 地中에서 古石塔 一基를 발견하였으니 寺刹은 이 古塔에 의하여 石塔寺라는 寺名이 붙게된 것이다. 이 塔은 俗傳에 阿育王所造 八萬四千塔中의 하나라고 전해져 《源平盛衰記》에도 이미 이러한 記事가 있다라고도 하였다.」

이 石塔은 一見하여 百濟時代의 石塔임을 곧 알 수 있다. 넓직한 塔區를 마련하고 地台石위에 塔身部를 받고 있는데 各층의 廣大한 屋蓋石이나 塔身石의 구성으로 보아 扶餘의 百濟塔(定林寺五層石塔)과 흡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樣式의 석탑은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 역시 百濟人에 의하여 건립되었다고 하겠다. (사진3, 참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고대불교문화의 자취가 일본 곳곳에 남아 있음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本稿는 論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전통문화속에 뿌리박힌 한국문화」중에서도 佛像彫刻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앞에서 예거하였듯이 일본의 전통문화 속에는 고대 한국인의 손에 의하여 이룩된 문화 유산, 혹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부분의 유적 유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적 유물에 대한 실증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대 한국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추측만을 하고 있을뿐, 그 실상을 파

2) 이 石塔寺三層石塔에 관하여는 日本의 불교미술 관계 책자에 많이 보이는데 우선 石塔만을 集成한 『日本の石塔』若杉 慧著(木耳社發行, 東京 1970)을 참고하였다. 日本 最古의 石塔이라 하여 初頭に 소개하였는데 앞으로 이 방면연구자에게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 原文을 적는다.

「土地では“インドウジ”と呼んでいる 聖德太子の 建立と 傳へる. 寬弘三年(1006) 地中より 古石塔一基を 發見し, 寺はこれによつて 石塔寺の 名がある. この 塔は 俗に 阿育王所造八萬四千塔の 一つであるとなつたへ 『源平盛衰記』にも すでに この 記事がある. 高さ 七.一七m, 三層石塔として 最大, 且最も古い遺品. 相輸は 後補なるも, 全體の 塔婆が 遞減の 梯形形を なし, 安定感があつて, 大陸的な 感じの 塔である, 天智天皇八年(669)に 百濟の 歸化人七百餘人が 蒲生郡に 移住する という. この塔は その人々がここに 佛事を 營み, 母國の 樣式によつて 供養塔としてでなく 伽藍の塔として 造立したものであるう. 奈良時代前期の ものと 見られる.」

악하지는 못하고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일본의 전통문화재속 에서 고대 한국에서 造成된 佛像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불상조각사상 귀중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는 불상들, 혹은 고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이 직접 조성하여 귀중한 불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유물들, 또는 고대 한국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불상등을 고찰하여 일본에 심어진 한국 문화의 일면을 불상조각을 통하여 밝혀보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위와 같은 한국적인 불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많은 불상을 모두 검토하는 일은 너무나 벅차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러한 연구의 완성은 현단계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동안 일본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만으로서 本稿를 집필하려는 바 이러한 생각에서 「불상조각에 대한 試論」이라 題하게된것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일본 각지를 답사하여 더욱 많은 자료가 조사되면 本稿에 누락된 자료와 미진한 내용들이 보강되리라 믿는다.

II. 일본에 傳해진 한국불상

오늘날 일본 국내에는 한국의 각종 불상이 많이 있다. 전국의 國·公·私立博物館과 美術館에 전해지고 있는 한국불상을 비롯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불상들, 사찰과 神社등에서 예배의 主尊佛로 奉安하고 있는 불상들, 실로 多樣한 所藏處로서 그 수요는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 학자들과 私席에서의 대화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金銅佛像보다 일본에 전해진 金銅佛像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약 600점에 달하는 金銅佛이 있어 그중 중요한 것 300점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도에 奈良의 大和文華館에서는 한국불상의 특별전도 개최하였으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東京國立博物館이나 奈良國立博物館에서도 佛教美術展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각종 불상을 전시하여 우리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이 소개되는 한국불상들에 대하여 관심을 쫓아 그 출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으며, 특히 고대의 불상으로 오래전에 전래된 것은 전혀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불상들이 어떠한 전래 경로였던간에 오늘날 이렇듯 많은 불상이 일본 국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몇 軀는 한국내에서도 볼 수 없는 귀중한 불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상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 한국불상이 많다는것은 필자가 對馬島에서 한국불상을 조사한 수요가 1989년도까지 122점인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³⁾ 對馬島는 序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제일 가까운 일본 영

3) 拙稿: 「日本 對馬島의 韓國佛像 新例」 『歷史教育論集』 第13・14合輯, 歷史教育學會, 1990.

「日本對馬島의 韓國金銅佛像 研究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美術史學篇』 一志社, 1987.

토이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있는 한국불상들을 조사하게 된 것인데 峰町 海神社 寶物殿에 수장되어 있는 統一新羅時代の 金銅如來立像이나 美津島町 黒瀬公民館에 수장되어 있는 統一新羅時代の 金銅如來坐像등은 국내에서도 보기도문 一級の 불상들이라 하겠다. (사진4, 5, 참조)

九州지방이나 특히 近畿지방에는 넓은 지역에 더욱 많은 한국불상이 곳곳에 수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바 이렇듯 많은 한국불상들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고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임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불상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일본의 國寶 제1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 京都 廣隆寺의 木造半跏思惟像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불상에 대하여 田村圓登씨는《日本史의 수수께끼와 발견》4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四天王寺의 金堂에 안치되어있는 半跏像은 聖德太子를 戀慕渴仰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半跏像은 難波吉士(나니와키시)의 私寺 시대부터 안치되어온 것 같다. 또한 太秦(우즈마사)의 廣隆寺의 本尊도 寶冠彌勒이라고 불리는 半跏像이었다. 廣隆寺와 四天王寺, 즉 難波吉士씨의 절들은 다같이 新羅系 씨족의 소유 사찰이며 그리고 厩戸王(우마도노미코)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지만 어쨌든간에 半跏像은 聖德太子 신앙의 상징이었다. 半跏像은 본래는 悉達太子像이었다.」

그런데 廣隆寺의 木造半跏思惟像에 대해서는 근년에 이르러 이 半跏像이 古新羅에서 造成하여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일본학자 毛利 久씨에 의하여 밝혀졌던 것이다. 즉 毛利씨는 그의 저서인 《佛像東漸(朝鮮と日本の古代彫刻)》京都 法藏館, 1983)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⁴⁾

「飛鳥時代前期: 이 시대에 新羅로부터 일본에 수시로 불상이 전해졌는데 現存하는 것 중의 하나로 廣隆寺의 木造彌勒菩薩半跏像을 들고 싶다. 이 불상은 廣隆寺에 전해 내려오는 내력으로 미루어 推古天皇 31년(623)에 아마도 聖德太子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新羅宮室로부터 獻上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樣式上으로는 한국의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있는 菩薩半跏像을 닮은 古新羅 특유의 수법으로 纖麗優美한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 廣隆寺 불상이 만들어진 推古天皇 31년은 法隆寺釋迦三尊像을 止利씨가 造成한 연대 이기도 하다. 兩 불상이 양식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나 이러한 兩 불상이 거의 같은 시기에 並存했었던 實例를 여기서도 볼

4) 毛利씨가 飛鳥時代의 불상을 論하면서 廣隆寺의 木造半跏思惟像이 분명히 古新羅에서 造成하여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힌 내용을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아 다음과같이 原文을 소개한다.

「飛鳥時代前期, この時代に新羅から日本へしばしば佛像が送られたが, その一つとして現存するものに, 私は 廣隆寺の木造彌勒菩薩半跏像をあげたい. この像は廣隆寺における傳來の事情から推古天皇三十一年(六二三)におそらく聖德太子の冥福を祈つて新羅宮室から獻上されたものにあたると思われる. 樣式的たは國立中央博物館藏菩薩半跏像に似て古新羅獨特のものであり纖麗優美な傾向が強い. ところが 廣隆寺像のもたらされた推古天皇三十一年いえば, 例の法隆寺釋迦三尊像を止利が造つた年でもある. 兩像に樣式上の差異が大きいことは明白であるが, そのようなものがほぼ同じ頃に 並存していた實例をここにもみいだすのである.」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廣隆寺木造半跏思惟像이 古新羅의 造成임을 고증한 논문은 毛利씨가 이미 1977년에 발표한 바 있다.⁵⁾

毛利씨가 廣隆寺木造半跏思惟像 (사진6-①, ②참조)을 古新羅의 조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여러 관계문헌연구와 특히 造形上 한국의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國寶83호, 사진7 참조)을 비교 고찰하였는 바 실제 이 兩半跏思惟像을 비교하면 각부양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같은점이 많아 1975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전 전시회에서 이 兩佛像을 兄弟佛이라고까지 칭하기도 하였었다.

이 兩佛像이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음은 여러 부문에서 지적할 수 있으니 첫째, 寶冠樣式에서 매우 간소하여 이른바 三山冠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둘째, 天衣에 있어서 上半裸身임이 또한 같은 점이다.

셋째, 台座가 圓形인 점과 그곳에 흘러내린 衣文의 표현이 보다 간략화되고 사실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된 점이 너무나도 같다.

넷째, 相好의 細部와 三道, 그리고 兩手指의 표현등에서도 같음을 볼 수 있고 相好에 나타난 미소도 똑같이 평화스러움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비교 고찰은 필자만이 아니라 先學들도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바인데 오히려 日人學者에 의하여 이 廣隆寺木造半跏思惟像이 古新羅의 조각으로서 일본으로 모셔갔다는 論著가 먼저 발표되었으니 한국측으로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저항과 물의가 있었으나 毛利씨의 치밀한 조사 연구에 따른 정확한 논리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니 오늘의 일본학계는 毛利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定說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으로 이와같은 半跏思惟像이 일본으로 전해 진것 가운데 三國期 百濟의 것으로 최근에 새로이 밝혀진 數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對馬島 美津島町 久須保의 淨林寺 소장 金銅半跏像인데 이 불상은 1984년 2월에 새로이 발견 조사된 것이다.⁶⁾

法堂 중앙의 佛壇 한구석 먼지 속에 비켜져 있던 이 金銅半跏像은 半跏坐한 허리위까지 남아있고 그 윗부분은 缺失되었는데 현지에서의 口傳은 火災로 녹아버렸다는 것이다. 허리에 單條의 裳衣帶가 둘러졌으며 앞에는 結帶가 있고 좌·우측면에는 이 裳帶로부터 굵은 2條의 紕帶가 길게 下端部까지 느리워졌는데 台座부분의 環飾과 그 밑의 結束부분, 下端部에 이르면서 약간 넓어지고 그 內面을 幾何紋등으로 장식한 것등…… 양측이 같은 형식의 紕帶를 보이고 있다.

양쪽 팔은 완전치 않아 왼쪽 팔은 어깨부분이 없어지고 오른쪽 팔은 半쯤만 남아 背面에 붙어있

5) 毛利 久: 「廣隆寺寶冠彌勒像と新羅樣式の流入」『白初洪淳昶博士還歷紀念史學論叢』所收, 1977.

6) 拙高: 「對馬島發見 百濟金銅半跏像」『百濟研究』 제15집 所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84.

으니 이러한 점으로 보아 火災에 上半身이 녹아버렸다는 口傳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下半身의 높이는 15.6cm에 불과하다.

半跏坐한 오른쪽 다리와 발은 완전하며 무릎위에는 오른팔을 구부려 손을 위로 향하게 했던 屈曲點이 남아있다. 오른쪽 발목위에 가볍게 놓은 왼쪽손은 완전하여 길쭉한 다섯 손가락이 부드러워 보이며 손목에는 팔찌 장식이 완연하다.

오른쪽 발목 밑에서 무릎을 구부린 왼쪽 다리는 길게 내려져 있고 발이 노출되었는데 오른쪽 발과 같이 다섯발가락이 완전하다. 蓮華紋의 足座인데 單葉의 8瓣伏蓮이 豊麗하며 各瓣內는 周緣을 따라 線紋이 장식되었다. 발은 이 蓮華座위에 1段의 낮은 괴임을 마련하고 그위에 가볍게 놓고 있다.

왼쪽 다리부분에 그려진 길쭉한 弧形의 衣文은 오른쪽 무릎밑의 台座를 덮고있는 衣文과 대칭적이며 왼쪽다리 양측 裳衣의 褶襞도 또한 대칭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뒷면의 裳衣도 4曲의 褶襞을 이루며 둘러있는것이 모두 좌·우 대칭적이다. 裳衣下端部 가까이에는 1條의 連珠紋이 周緣을 따라 장식되었으므로 全面的 衣端은 좌·우 緝帶와 아울러 다소 華奢하게 보인다. 裳衣端部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그 한쪽이 台座부분으로 올려져 오른쪽 다리 밑에 넓은 弧形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앞자락의 裳衣를 半跏像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이렇듯 넓직한 것은 드문 일이다. 台座는 仰蓮座가 아니고 裳衣주름이 평행 斜形으로 둘러지듯 조각되어 있다. 下端部는 현재 素紋의 間地가 둘러졌으나 본래는 別造의 蓮華台座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台座의 내부와 胴體는 空洞이다. 火焰에 의하여 鍍金色은 全無하고 간혹 깊숙히 조각된 부분에 鍍金の 흔적이 보일뿐 全面은 黑青色으로 변해져 있다. (사진8-①~③참조)

이 半跏像은 切斷된 胴體부분으로 보아 허리가 가늘고 매우 날씬한 몸매를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 이 金銅半跏像과 比較되는 遺品은 扶餘 扶蘇山出土 半跏石像(現高 13.3cm, 국립부여박물관소장, 사진9-①~④참조)이라 하겠는데 이 兩佛像을 비교 검토해 볼 때 對馬島의 半跏像이 부여의 半跏石像의 각부와 흡사함을 느끼어 곧 600년경 百濟시대 所作의 金銅半跏像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長野縣 北安曇郡 松川村의 觀松院 소장 金銅半跏像인데 이 佛像은 오랫동안 秘佛로 모셔져 있어 공개되지 않다가 久野 健씨(前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情報資料部長)에 의하여 조사 발표되므로써 학계에 알려져 여러 학자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⁷⁾

이후 이 金銅半跏像은 이 방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더욱 더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되어 각기 저술이나 논문등에 인용 혹은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근년에는 1982년도 가을에 奈良의 大和文華館에서 열린 「百濟·新羅의 金銅佛特別展」에 전시되고 또 당시의 특별전도록에도 「No. 47, 彌勒菩薩半跏像(三國時代)」으로 도판과 해설이 수록되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오랫동안 日本的인 秘佛의 신비성과 비밀이 깨어진 셈이 되고 말았다. 여하튼 秘佛의 전통에는 다소 흠이

7) 久野 健: 「中部地方の古代銅像」 『美術研究』 291號 所收,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內 美術研究所 發行,

갔다 하더라도 불상조각의 연구, 나아가 美術文化交流史研究에는 다시없는 귀중성이 부여되었으므로 오히려 공개되었음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1982년도 특별전 진열전시 이후 이 金銅半跏像은 즉시 원위치인 觀松院에 반환되어 역시 秘佛로 봉안되므로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동안 여러 저술에 前·後·側面등의 도판과 해설이 있어서 實物은 비록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저술에 의하여 金銅半跏像의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였다.⁸⁾

그런데 이들 論著를 보면 이 金銅半跏像의 造成年代를 추정하되 飛鳥時代, 혹은 한국의 三國時代등이라 하여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처음 이 半跏像을 조사발표한 久野씨도 「한국으로부터 渡來한 불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造成한 것인지 결론짓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半跏像이 전해지고 있는 北安曇郡의 “아스미”라고 하는 地名이 渡來人과의 관계가 깊은 점을 생각해보면 渡來佛일 가능성이 강하지만 한편 한국에 現存하는 다수의 半跏像과 비교해 볼 때 그 자세와 相好에 있어서 한국의 三國時代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整齊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으로부터의 渡來佛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결론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論旨는 「한국에는이 半跏像에 가까운 양식을 갖추고 있는 半跏像을 찾아 볼 수 없음에 대하여 일본의 現存 유품에는 神野寺像과 같은 아주 흡사한 半跏像이 있다고 하는것은 역시 觀松院의 半跏像도 일본에서 造成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면서 「7세기 전반의 銅像은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渡來한 工人들의 손에 의하여 造成된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古代의 불상일수록 그 造成地를 결정짓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으로부터 渡來하여 그렇게 오랜 시일이 되지않은 工人이 불상을 造成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造成했다 하더라도 觀松院의 半跏像과도 같이 한국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⁹⁾

결국 이와같은 久野씨의 論旨는 觀松院의 半跏像이 결코 한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造成된 것이라 결론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實物을 조사한 바로는 이 半跏像은 한국으로부터 모셔져 온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¹⁰⁾

이 觀松院의 金銅半跏像은 現全高 29.9m의 中形인데 화재로 인하여 火氣에 쌓였던 탓인지 全面이 검은색으로 변해져 있다. 그러나 오른쪽 귀 뒷면과 오른쪽 무릎밑 일부에 약간의 鍍金 흔적

1974年 1月.

8) 久野 健：『古代朝鮮佛と飛鳥佛』，東出版社，1979. 松原三郎·田邊三郎助：『小金銅佛』，株式會社 東京美術，1979.

久野 健：『古代少金銅佛』，小學館，1982.

李造官：「在日韓國金銅佛像調査(上)」，『東洋學』第十四輯所收，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1984

9) 註 7)을 참조. 단 久野씨의 논문을 그대로 옮기되 부분적으로 意譯하고 또는 朝鮮이라 칭한 國名을 朝鮮王朝로 잘못 알 것 같아 모두 韓國이라 칭하였다.

10) 1985년 7월에 久野씨의 소개로 長野縣 長野市の 長野縣信濃美術館에서 자세하게 조사 촬영할 수 있었다.

이 보이고 있어 金銅製半跏像임은 틀림없다. 물론 火氣를 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슬쩍 지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므로 각부의 조식등 原形이 잘 보존되어 있다.

머리에는 높고도 큼직한 寶冠을 쓰고 있는데 그 화려함이 이룰데 없으니 頂上에 큼직한 여러겹의 연뿔形 寶珠와 弧形盤台를 조각하여 이른바 태양과 초생달을 장식하였고 그 밑으로 化佛立像(塔形으로도 보이나 각부의 조식이 뚜렷하지 않아 우선 化佛이라 해두고 앞으로 더 조사 연구해 보겠다)을 배치하여 큼직한 圓形 頭光을 장식하되 6瓣의 넓직한 蓮華紋을 돌렸으며 그 밑으로는 胴體 좌·우에 두줄씩의 蓮珠紋을 느리워 冠帶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化佛과 蓮華紋帶 좌·우로는 立狀 蓮華紋등 花葉紋을 여러겹으로 조각하여 실로 화려한 寶冠이라 하겠다. 넓직하게 표현된 冠帶는 양쪽 옆에서 매듭을 짓고 양쪽 귀 앞으로 늘어뜨려 가슴에까지 흘렀으므로 양쪽귀는 冠帶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뒷편에서 양옆으로 흘러내린 寶髮은 結束된 세가닥이 퍼져 양쪽 어깨위를 덮고 있으며 冠帶밑의 이마에는 곱게 빗은 寶髮이 표현되어 있다.

머리를 약간 숙였으므로 正視眼이 아니고 밑쪽을 내려다보는 표정인데 워만한 相好에는 全面에 미소가 어리어 있다. 양쪽 눈썹은 길게 파서 길죽한 弧形을 이루었고 양쪽 눈 또한 길게 눈꼬리를 돌리면서 半開하였다. 양쪽 눈썹에 이어 세워진 콧날은 오뚝하며 야무지게 다문 입가로부터 볼록한 양쪽 볼에까지 강하게 미소가 표현되어 있어서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尊容임을 곧 느낄 수 있다.

목에는 三道가 돌려져 있고 그 밑으로 가슴에 이르면서 목걸이를 장식하였는데 물론 목 뒷편에도 목걸이가 완전히 돌려져 있다. 목걸이는 넓직한 陽刻帶로 이루어졌고 上·下端部 內面에 周緣을 따라 細線紋이 있으며 그 내면은 線紋으로 區劃한 各區間에 珠紋 하나씩을 장식하였는 바, 가슴 중앙부에서는 下端部만 尖形을 이루고 있다. 手印은 오른쪽 팔굽을 오른쪽 무릎위에 대고 손을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깨로부터 팔굽과 前膊部 중앙까지는 金銅으로 造成한 原形이나 前膊중앙부 부터 손가락 끝까지는 木造의 後補物이다. 아마도 화재를 당할 때 파손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왼쪽팔은 半跏形들의 通式으로 자연스럽게 내려 오른쪽 발목위에 손을 놓아 발목을 잡은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손가락들이 길죽길죽하여 세련된 作風임을 느끼게 한다.

胴體의 上部 뒷면은 높직한 寶冠 밑으로 寶髮의 雙髻形이 조각되어 있고 머리에는 중앙부에 頭光을 장식하였던 突起가 있으며 목걸이 장식 이외에는 全裸形이다.

허리에는 衣帶 周緣線까지 3條의 裳衣帶가 돌려졌는데 앞의 臍部에 結帶가 있어 이 매듭 부분에서 2條의 넓은 衣帶가 흘렀으며 좌·우 측면에는 허리부분의 裳衣帶로 부터 굵은 2條의 紕帶가 길게 下端部까지 느리워 졌다. 그런데 이 길다란 2條의 紕帶는 台座부분의 環飾과 그 밑의 나비形 結束(나비형 매듭)부분부터 점차 넓어졌는데 그 밑에는 幾何學的인 斜格紋으로 장식하고 특히 下端部에 이르면서는 더욱 넓어져 그 내면을 縱線紋을 가늘게 조각한 것등, 모든것이 兩側이 같은 형식의 紕帶를 보이고 있다.

半跏坐한 오른쪽 다리와 발은 자연스럽게 놓여졌으나 다른 半跏象들에 비하여 무릎이 유난히 올라갔으며 발끝도 下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른쪽 발목을 올려놓고 무릎을 구부린 왼쪽 다리

는 길게 내려졌는데 무릎 밑으로 얇게 陰刻된 길쭉한 橢圓形의 衣文은 무릎부터 발등까지 다리와 밀착되어 있음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발은 裳衣端밧으로 노출되었는데 오른쪽 발과 같이 다섯 발가락이 두툼하다. 蓮華紋의 足座인데 單葉으로 10瓣의 伏蓮을 豊麗하게 조각하였으며 各瓣內는 다시 豊滿한 瓣內를 線文으로 둥글게 장식하고 있다. 발은 이 蓮華座위에 1段의 낮은 괴임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가볍게 놓았는데 이 괴임대에는 측면과 上面에 小形의 仰·伏蓮을 가득히 장식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왼쪽 다리부분에 그려진 길쭉한 弧形의 衣文은 오른쪽 무릎밑의 台座를 덮고 있는 길쭉한 弧形의 衣文과 대칭적인데 왼쪽 다리의 衣文이 얇게 표현된데 대하여 오른쪽의 衣文은 깊고 두툼하게 조각되어 있다. 한편 왼쪽다리 양편의 裳衣의 褶襞도 또한 대칭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뒷면의 裳衣는 크게 2曲의 褶襞을 이루어 좌·우 대칭으로 둘러있다. 裳衣 下端部는 周緣을 따라 唐草紋帶를 장식하여 더한층 화려한 裳衣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全面에서도 衣端部에서는 좌·우 紕帶의 장식들과 잘 어울려 화사함이 돋보인다. 裳衣端部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그 한쪽이 台座부분으로 올려져 오른쪽 다리 밑에 넓은 弧形을 그리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앞자락의 裳衣를 半跏像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이렇듯 넓직한 것은 드문 일이라 하겠다.

台座는 圓形이며 2條紋으로 표시한 圓形 괴임대 위에 細彫의 斜格紋을 장식한 높직한 보료가 마련되어 있다. 下端部는 현재 素紋의 間地가 둘러졌으나 본래는 別造의 蓮華台座등의 台座가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寶冠으로 부터 台座까지 蠟型鑄物로써 台座 內部는 空洞이다. (사진10-①~③, 참조)

이상과 같이 觀松院에 전래하는 金銅半跏像을 대략 살펴보았거니와 우선 여기서 밝혀놓아야 할 문제는 이 半跏像의 手印중 오른쪽 손의 모양이다. 久野씨도 「현재의 오른쪽 손이 前膊의 중앙부터 손끝까지 木製의 後補」라고 명백하게 말하면서 「右手는 本來 지금과 같은 印相이었는지, 또는 右手를 볼에 댄 思惟의 자세였는지는 不明하다」고 하여 右手印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학자도 대략 이와같은 견해인데 필자가 實物을 조사하여 다른 遺例들과 비교해볼때 이 半跏像의 右手印相은 思惟의 자세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즉 右手의 前膊 중앙부에서 이어지는 木造右手와의 연결 곡선을 보면 어색하며 팔굽으로부터의 곡선은 서서히 內曲되어 이 곡선을 그대로 연결시킨다면 결국 그 손가락 끝은 오른쪽 볼에 닿게 된다. 그리고 이 半跏像의 자세는 正坐正視한 것이 아니고 허리부분부터 전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특히 머리를 앞으로 숙여 典型的인 半跏思惟像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곧 알 수 있다. (사진10-②참조)

그러므로 이 觀松院像은 半跏思惟像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어디에서 造成되었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對馬島 淨林寺의 金銅半跏像을 百濟時代의 所作으로 추정하였는 바 淨林寺像의 남아있는 부분만을 觀松院半跏像과 비교해 볼 때 이 兩像이 어찌면 그렇게 똑같을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진 8, 10을 비교 참조)

淨林寺金銅半跏像이 百濟時代 造成이라 함은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고 日人學者도 발표논문

이 있는 바¹¹⁾ 觀松院의 金銅半跏像이 淨林寺의 金銅半跏像과 같은 樣式이고 또한 각부의 造成 手法도 같다면 觀松院의 金銅半跏像이 곧 百濟의 造成品이라는 추정이 틀림없을 것인 바 실제 두 半跏像의 각부를 비교해보면 더욱 百濟의 金銅半跏像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즉 細長한 허리부분에 裳衣帶가 둘러지고 앞에는 結帶가 있으며 좌·우 측면에는 이 裳衣帶로부터 2條의 紕帶가 길게 下端部까지 느리워져 있는 점, 그리고 이 紕帶에서 台座부분의 環飾과 그 밑의 매듭부분, 下端部에 이르면서 약간 넓어지고 그 內面을 幾何紋등으로 장식한 점 등은 兩像이 똑같다. 왼쪽 다리부분에 그려진 길쭉한 橢圓形의 衣文이 오른쪽 무릎밑의 台座를 덮고있는 衣文과 대칭적인 점, 왼쪽다리 양측 裳衣의 褶襞 또한 대칭적인 점, 특히 裳衣端部에서 그 한 쪽이 台座부분으로 올려져 오른쪽 다리밑에 넓은 弧形을 그리고 있는 특징적인 면까지 두 半跏像이 똑같다고 하겠다. 오른쪽 발바닥 한 가운데 길이로 깊게 파여있는 점과 노출되어 있는 왼쪽발의 足座가 蓮華座로 이루어졌으며 1段의 낮은 괴임위에 발을 놓고 그 밑에 둘러진 豊麗한 單葉伏蓮內를 다시 細線으로 장식한 점 등까지도 똑 같다.

뒷면의 裳衣에 있어서 淨林寺像은 4曲이나 觀松院像은 2曲이다. 그러나 모든 衣文이 좌·우 대칭적이고 古拙한 衣端의 作風을 보이고 있음은 동일하며 台座에 있어서도 보료의 施紋은 같지 않으나 圓形의 기본형은 같다. 下端部에 있어서도 素紋의 間地가 둘러져 본래는 別造의 蓮華座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台座의 내부와 胴體가 空洞인 점 등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우선 몇가지 점을 비교 검토하여 觀松院像이 淨林寺像과 同一한 양식과 수법임을 알 수 있어 혹시 同一人의 所作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앞서 이에 淨林寺像을 百濟 造成으로 단정함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귀중한 百濟遺品인 扶餘扶蘇山出土半跏石像이 있어 이 石像과 비교고찰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하나의 金銅半跏思惟像이 있어 역시 百濟의 所作으로 추정되는 바 日人 松田 光씨 소장 金銅半跏思惟像이다(神奈川縣 川崎市 麻生區 王禪寺 光ヶ谷 거주). 이 佛像은 오랜동안 三重縣 一志郡의 積善寺에서 수장하고 있었던것을 松田씨의 선친인 故 松田 福一郎씨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久野씨의 소개에 의하여 1987년과 1988년 두차례 조사한 바 있어 그 출처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現全高 17.5cm의 中形에 가까운 이 金銅半跏思惟像은 典型的인 半跏의 思惟形을 취하고 있으니 台座에 걸터앉아 半跏하였으며 오른손을 오른볼 쪽으로 올려 思惟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염에 쌓였던 탓으로 오른손 끝부분이 磨損되고 寶冠과 相好 각부에 마흔이 보이며 下部에 있어서 足座는 완전하나 그 밑에 있었던 台座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火氣에 쌓였던 탓인지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해져서 鍍金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火氣를 쓰였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스쳤음인지 각부의 조각등 原形이 잘 보존되어 있다.

11) 大西修他：『對馬淨林寺の銅造半跏像について』『半跏思惟像の研究』所收，東京 吉川弘文館，1985.

머리에는 높고도 큼직한 三山形의 寶冠을 쓰고 있는데 비록 火氣로 인하여 細部 조각은 마멸되었다 하더라도 原形은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頂上에 큼직한 寶珠와 弧形盤台를 조각하여 이른바 태양과 초생달을 장식하였고 그 밑에 化佛(塔形으로도 보이거나 세부조각이 뚜렷하지 않아 우선 化佛이라 하고 앞으로 조사 연구해 보겠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花紋등으로 장식하여 본래는 화려한 寶冠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寶冠 下端에는 3條로 이루어진 冠帶가 있으며 좌·우 측면에서 圓形蓮華座로 매듭지어져 두줄기가 양쪽 귀 앞으로 늘어져 가슴부분까지 흘렀다. 그러므로 양쪽귀는 冠帶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冠帶 밑에는 곱게 빗은 寶髮이 표현되어 있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앞으로 숙였으므로 正視眼이 아니고 밑쪽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相好는 원만하며 입가에 약간의 미소가 어리어 있어 근엄하면서도 자비스럽다. 鼻樑과 口脣은 整齊되었고 兩眉部도 뚜렷하며 兩眼部는 細長한 편인데 눈을 杏仁形으로 뜨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의 두눈은 原形이 아니고 火氣를 쏘인 뒤에 다시 조각한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後刻하였다 하더라도 희미해진 두눈의 모양을 따랐을 것이므로 본래의 모습도 현재와 다름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목걸이도 없으며 다만 양쪽팔에 팔각지와 양손목에 팔찌를 하고 있는바 양쪽이 같은 형식으로 팔찌는 넓직한 珠紋帶의 通式이다. 그러나 팔각지는 山形으로서 蓮珠紋위에 花紋을 조각하였는데 이러한 장식은 兩팔의 外面에만 보이고 있다.

手印은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위에 얹고 손을 들어 오른쪽 볼을 향하여 思惟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손끝이 磨損되어 손가락의 細部 조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왼쪽팔은 半跏像들의 通形으로서 자연스럽게 내려 오른쪽 발뒷꿈치위에 손을 놓아 발목 부근을 잡은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손가락들이 길죽길죽하여 세련된 느낌을 준다. 한편 양쪽팔과 손등이 통통하여 세련미와 더불어 豐麗한 作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胴體에서도 또한 느낄 수 있는 바라 하겠다.

胴體의 上半 뒷면은 목걸이가 없이 아무런 조식이 없으며 다만 頭部에 光背를 附着하였던 突起가 있는데 머리 윗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아 頭光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머리의 頂上部가 磨損되어 확실치 않으나 본래는 寶髻의 髻形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에는 3條로 이루어진 裳衣帶가 뒷면에까지 둘러져 있는데 앞뒤에는 밑으로 흘러내린 衣帶 등의 조각이 없고 좌·우 측면에서 衣裳帶로부터 굵은 두줄기의 紕帶가 길게 下端部까지 드리워졌다. 그러데 이 긴 두줄기의 紕帶는 각기 2條紋으로 이루어졌는데 台座부분의 2條紋 環飾과 그 밑의 나비形 매듭 부분부터 점차 넓어졌다. 環飾을 거쳐 매듭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조식이 없이 2條紋帶가 흘렀으나 나비장식부터는 幾何學的인 斜格紋과 交叉線紋등으로 장식하고 특히 下端部에 이르면서는 더욱 넓어져 그 내면을 縱線紋으로 장식하였다.

半跏坐한 오른쪽 다리와 발은 자연스럽게 놓여졌으나 다른 半跏像들에 비하여 무릎이 유난히 올라갔으며 발끝이 거의 직선으로 연속되고 있어서 무릎으로부터 발끝까지는 마치 一直의 斜面을 이루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正面에서도 발의 바닥面이 뚜렷하게 보인다. 오른쪽 발목을 올려 놓고 무릎을 꾸부린 왼쪽다리는 길게 내려졌는데 무릎 밑으로 얇게 陰刻된 길쭉한 橢圓形의 衣文

은 무릎부터 발등까지 다리와 밀착되어 있음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발은 裳衣端 밑으로 노출되었는데 오른쪽 발과 같이 다섯발가락이 두툼하다.

足座에는 蓮華紋이 돌려져 있는데 單葉으로 10瓣의 伏連을 豊麗하게 조각하였다. 발은 이 蓮華座위에 1段의 낮은 괴임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가볍게 놓았다.

왼쪽 다리부분에 조각된 길쭉한 弧形의 衣文은 오른쪽 무릎밑의 台座를 덮고있는 橢圓形의 衣文과 대칭적인데 왼쪽다리의 衣文이 알개 표현된데 대하여 오른쪽의 衣文은 깊고 두툼하게 조각되어 있다. 한편 왼쪽다리 양측 裳衣의 褶襞도 또한 대칭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뒷면의 裳衣는 크게 2曲의 褶襞을 이루어 좌·우 대칭으로 돌려있다. 裳衣下端部는 周緣을 따라 線紋帶를 마련하고 있다. 裳衣端部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裳衣의 한쪽이 台座부분으로 올려져 오른쪽 다리밑에서 넓은 弧形을 그리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앞자락의 裳衣는 半跏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나 이렇듯 폭이 넓직한 것은 드문 일이라 하겠다.

台座는 圓形이며 두툼한 보료가 마련되어 있다. 下端部는 현재 素紋의 間地가 돌려졌으나 본래는 別造의 蓮華台座등의 台座가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寶冠으로부터 台座까지 蠟型鑄物로서 台座의 내부는 空洞이다. (사진 11-①~③참조)

이 金銅半跏思惟像에 대해서는 久野씨의 저서인 《古代小金銅佛》에도 약간의 언급이 있는 바 「長野觀松院像에서 볼 수 있는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어 각부에서 보면 觀松院像과 가깝다. 전체적으로 朝鮮 三國時代의 불상과 통하는 요소가 많다. 아마도 渡來佛을 일본에서 모방하여 造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久野씨가 필자에게 소개할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한국학자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조사를 권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久野씨 자신이 이 金銅佛의 국적이 한국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조사가 끝난 뒤 久野씨에게 「조사결과 三國期 百濟의 造成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하였을 때 「그렇지도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었다.

이 松田씨 소장 金銅半跏思惟像은 一見하여 觀松院半跏像과 흡사함을 느끼며 또한 對馬島의 淨林寺半跏像과도 같은 造成意匠과 樣式手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일본에 전하는 半跏像3軀를 살펴보았는데 이 3軀를 한자리에 놓고 보면 각부의 양식과 수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흡사하여 同一人이 거의 같은 시기에 造成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하는 바 600년경 百濟에서 造成하여 그후 일본으로 모시고 갔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扶餘扶蘇山出土半跏石像과의 세밀한 비교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이밖에 일본에 전하는 古代의 한국 金銅佛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으나 神社나 寺刹에 秘佛로 모시어 엄숙하게 간직되었던 불상이 근년에 조사되어 韓國造成의 金銅佛로 밝혀진 것 가운데 대표적인것은 宮城縣 船形山神社의 金銅菩薩立像(사진 12, 참조), 新潟縣 關山神社의 金銅菩薩立像(사진 13, 참조)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兩菩薩像에 대해서는 久野씨가 그의 저서인 《渡來佛の旅》(日本經濟新聞社, 1981.)에서 한국에서 모셔왔을 것이라 언급한 내용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再言을 요하지 않으나 이 저서에서 한국으로부터의 渡來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이 兩像은 분명히 한국에서의 造成佛像인 것이다. 久野씨의 소신은 「일본에 渡來한 古朝鮮의 불상에는 두가지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北九州로 들어와 瀬戸内海를 통해 大和地方에 운반된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고, 또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日本海를 건너 潮流를 타고 중부지방인 日本海沿岸에 상륙한 경우이다. 오늘날 新潟縣 關山神社의 主尊體로 되어있는 金銅菩薩立像이나 長野縣 觀松院의 金銅菩薩半跏像등은 後者の 例이며 長野縣 善光寺의 本尊像등은 前者의 例이다. 船形山神社의 菩薩立像도 이중의 어느 경로에 의하여 일본에 渡來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¹²⁾는 것이다. 이러한 久野씨의 소신에 필자도 수긍이 가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 菩薩像의 國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거니와 현재로는 이들 諸像이 한국의 古代佛像이라는 점만을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III. 일본에서의 한국인 造成 佛像

이 사항은 다음 章인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불상」의 문제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여기서는 기왕에 알려진 사실만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위치한 飛鳥寺의 金銅大佛을 살펴보면 現全高 2.7m의 大作으로 兩眼 주위에는 아직도 鍍金の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측에서는 法隆寺釋迦三尊보다 17년이 앞서고 奈良市の 東大寺의 大佛보다 약150년이 앞서는 일본 最古의 金銅佛이라 하여 606년 止利佛師所作이라 일컫고 있는데 이 문제는 먼저 飛鳥寺 창건의 배경을 고찰해야 될 것이다. 이 大佛 鑄造에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사찰이야말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木造 건축으로서 위용을 자랑했던 절이며 최초의 승려는 高句麗의 慧慈와 百濟의 慧聰이었다. 飛鳥寺는 1956년 이후 3차에 걸친 발굴에 의하여 탑을 중심으로 동·서와 북쪽에 각기 金堂이 있어 3金堂이었고 이를 廻廊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講堂은 廻廊을 낀 金堂의 北쪽에 배치하여 廻廊의 남쪽과 서쪽에는 南門과 西門이 있었다. 이와같은 가람배치는 高句麗의 平壤淸岩里寺址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며 일본에서는 「百濟樣七堂伽藍의 制」라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高句麗의 양식이 百濟에 전해진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출토된 막새기와를 보면 扶餘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는 豊麗한 蓮華紋 막새기와들과 흡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 大佛의

12) 久野씨의 소신을 意譯하였으나 이 방면 연구자를 위하여 原文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我が國に渡來した古朝鮮の佛像には、二つのコースがあつたと推定される。その一つは朝鮮から北九州に入り、瀬戸内海から大和地方に運ばれたごく善通ニコースと、もう一つは、朝鮮半島から日本海を經由し、潮流にのつて中部地方の日本海沿岸に上陸する場合の二つである。今日新潟縣の關山神社の御神體となつている金銅菩薩立像や、長野縣觀松院の金銅菩薩半跏像などは後者の例であり、長野縣の善光寺の本尊像などは前者の例である。船形山神社の菩薩立像の場合も、どちらかの經路により我が國に渡來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推定される。」

造成은 역시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寺刹側에서는 물론 百濟의 工匠들에 의하여 造成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相好에 있어서 兩眼이 杏仁形이고 法衣가 두툼한 점등은 이 佛像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다(사진 14, 15참조).

한편 杏仁形의 兩眼과 두툼한 法衣는 百濟佛像의 특징의 하나로서 瑞山磨崖三尊佛(사진16참조)이나 軍守里石造如來坐像(사진 17 참조)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大佛의 造成은 우리 조상들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奈良의 東大寺는 752년에 완성, 大佛開眼會가 열렸는데 이때에 高句麗의 樂舞가 연주되었으며 거국적인 大佛事의 주역이었던 行基와 良辯, 秦朝元등은 모두 한국에서 건너간 조상들이었다. 그리하여 東大寺 바로 뒤에 辛國神社가 있으니 이곳에는 곧 東大寺를 지키는 우리의 조상을 主神으로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당시 이곳 東大寺의 大佛도 우리 조상의 손에 의하여 造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다고 하는 滋賀縣에는 百濟寺의 移住民이 창건, 건립하였다는 石塔寺와 三層石塔이 있고¹³⁾이밖에 百濟寺가 있으며 栗太郡 栗東町 金勝山에 狛坂(고마사까)廢寺址가 있다. 이 廢寺址에 磨崖佛像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久野씨는 그의 저서인 《渡來佛の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狛坂廢寺의 磨崖石佛을 보고 여러번 한국에 가서 七佛庵을 비롯하여 다수의 磨崖石佛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착안하게 된것은 前期하였듯이 狛坂廢寺의 石佛이 그 조각의 풍부한 수법에 있어서 新羅의 石佛에 흡사할 뿐만 아니라 石材의 상태까지도 많이 닮고 있다는 점이다. 慶州南山의 磨崖石佛들도 거의가 花崗岩의 自然岩壁에 佛·菩薩을 조각하고 있는 점이다. 山中에 노출된 돌을 고른점, 돌모양이 良好한 것을 선택한 점등으로 미루어 더한층 이 石佛의 作者가 渡來人系의 기술자였던 것을 말해주는 듯 하다」¹⁴⁾

필자는 久野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 바가 있으며 久野씨는 南山을 여러차례 답사하였던 것으로 안다. 필자도 이곳 狛坂廢寺址磨崖石佛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石佛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慶州 南山에서 磨崖佛·菩薩群을 대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慶州 南山의 七佛庵磨崖佛은 동쪽 암벽에 東向하여 三尊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별도로 솟은 長方形 石柱四方에 四方佛을 조각하여 도합 7軀인 것이다. 이 가운데서 中心佛은 東向 암벽의 三尊佛인 데 중앙에 如來坐像을 모시고 좌우에 脇侍菩薩立像을 배치하였다.

13) 註②를 참조

14) 久野씨의 의견을 대략 옮겼으나 이 방면 연구자를 위하여 原文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松は、狛坂廢寺の磨崖石佛を見てから、何度か韓國にゆき、七佛庵をはじめ多數の磨崖石佛を調査する機會にめぐまれた。そして氣がついたのは、前記したように狛坂廢寺の石佛が、その浮彫のたくみな手法において、新羅の石佛に以てるだけでなく、石の相というものもきわめて近いという点である。慶州南山の磨崖石佛なども、多ヤヤくは上のとがったおむすび形の自然石(花崗岩)に佛・菩薩を彫り出していることが多いという点であつた。山中に露出した石を選ぶ際にも、石の相の良好な婆のものを選んでいる点も、ますますこの石佛の作者が渡來人系の技術者だつたことを物語つていよ。」

狛坂廢寺址磨崖石佛은 넓직한 암벽에 三尊佛을 모시고 그 上部에 化佛과도 같은 小形의 三尊像과 菩薩像들을 조각한 것인데 여기의 主尊인 三尊은 중앙에 如來坐像을 모시고 좌·우에 菩薩立像을 배치하여 佛·菩薩의 배치와 作風이 일본의 다른 磨崖佛·菩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사진 18-①~④참조) 즉 慶州 南山의 磨崖佛은 統一新羅盛代인 8세기의 所作으로 主尊佛의 胴體가 당당하고 좌·우 협시보살의 天衣등도 流麗하여 당시 新羅의 위풍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사진 19 참조), 이러한 作風을 일본에서 볼 수 있는 磨崖佛이 바로 狛坂廢寺址磨崖佛이다. 日人學者들은 狛坂廢寺址의 磨崖佛을 奈良時代 後期인 8세기末로 造成年代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참작해보면 新羅盛代에 이미 완숙했던 石造彫刻의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되 당시 滋賀縣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에 의하여 이 磨崖石佛이 造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불상

한국의 영향을 받아 造成된 불상은 金銅佛과 石佛을 막론하고 일본 전국 각지에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수가 없을 정도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찌기 한국으로부터 많은 불상이 일본에 전해졌으므로 이러한 불상들을 모범으로 하여 일본에서 불상이 造成되었을 것이니 이것은 물론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일본으로 移住한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하여 상당수의 불상이 造成되었으므로 이후 일본 사람들은 이들 불상을 모범으로 하여 造成하였을 것이니 또한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長野市の 善光寺緣起에 의하면 百濟로부터의 請來佛 3尊이 모셔져 있어 일본 最古의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에까지 秘佛로 모셔져 있다 하며 다만 鎌倉시대의 模造像으로 金銅三尊佛이 알려져 있을뿐이다(사진20 참조).

善光寺인 경우는 百濟로부터 渡來한 佛像이라고 칭하지만 이밖에 일본에서 造成한 金銅佛인 경우, 例컨대 奈良 法隆寺의 金堂內 金銅三尊佛이나 神奈川縣 圓覺寺 金銅三尊佛(사진 21, 22참조) 등의 三尊이라는 意匠과 그 양식은 한국불상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金銅三尊像은 三國時代에 전국에서 많이 造成되어 辛卯銘金銅三尊立像(사진 23참조), 癸未銘金銅三尊立像(사진24 참조)등을 예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6세기 造成으로서 이러한 造形의 양식이 일본으로 건너가 7세기에 이르러 일본에서의 三尊佛 造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石佛에 있어서도 몇가지의 遺例를 들어보면 우선 奈良縣 櫻井市 忍坂(오쓰사카)의 石位寺 三尊石佛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石佛은 主尊佛을 중심으로 좌·우에 합장한 菩薩立像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主尊佛의 앉은 자세로 倚像인 점이다(사진25, 26 참조). 그런데 이러한 倚像의 형태는 7세기 초반인 古新羅時代(善德女王代)에 造成된 慶州三花嶺三尊石佛의 本尊인 彌勒如來倚像에서 볼 수 있다(사진27 참조).이 本尊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자세에서 볼 수 있는데 直立 또는 結跏趺坐形이 아니라 坐形이면서도 方座에 걸터앉아 양쪽다리를 바로 내려 이른바

倚坐形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石位寺三尊石佛 本尊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石佛에 대해서는 日本學者들 사이에 白鳳時代 혹은 奈良 前期의 造成으로 추정하고 있다. 白鳳時代나 奈良前期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초반에 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文物이 일본으로 전해진 때여서 이미 古新羅의 善德女王때 造成된 慶州三花嶺三尊石佛本尊倚像의 양식과 作風이 일본으로 전해져 石位寺三尊石佛과 같은 佛像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石造倚像이 造成되어 法住寺磨崖如來倚像과 같은 遺例를 보이고 있는데 (사진28 참조) 일본에서는 이러한 양식이 계승되지 않고있어 倚像이 그당시의 영향으로 造成되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 일본에서의 磨崖石佛로 이름난 것은 頭塔藥師三尊石佛(奈良市 高畑町所在, 奈良時代後期造成, 사진29 참조), 大谷寺阿彌陀三尊磨崖佛(杻木縣 宇都宮市 大谷町所在, 平安時代中期~末期造成, 사진30 참조)등으로 이들이 奈良時代 後期인 8세기후반부터 平安時代 末期인 12세기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造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훨씬 앞선 때에 磨崖三尊佛이 造成되어 泰安磨崖三尊佛像(百濟時代 6세기造成, 사진31 참조), 瑞山磨崖三尊佛像(百濟時代 7세기초반造成, 사진16 참조), 榮州可興里磨崖三尊佛像(統一新羅初期 7세기후반造成, 사진32 참조)등의 遺例를 볼수 있으니 이렇듯 한국에서의 磨崖佛造成과 三尊佛의 양식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에서도 三尊佛의 磨崖佛 造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語

이상과 같이 「일본 전통문화속에 뿌리박힌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大題에서 불상조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序頭에서도 말하였듯이 불상조각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너무나 많고 범위도 넓어서 本稿는 그 試論에 불과할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 내용을 집필하고 보니 試論에서도 入門에서 그친 감이 든다.

그것은 많은 불상자료 가운데서 실증적으로 비교 연구한 내용이 각 章에 걸쳐 불과수 점씩이기 때문이다. 물론 각 章에서의 언급이 대표적인 유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전체의 수요에 비하면 적은 내용이다.

첫째, 일본에 전해진 한국불상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불상이 秘佛 혹은 未發見品으로 있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한국불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國籍이 어디인지 일본학자들이 확실히 해놓은 내용이 적은 편이어서 이들 불상에 대하여는 우리의 안목으로 자세히 조사 검토하여 분명한 결론을 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한다.

둘째, 일본에서의 한국인 造成 불상도 상당수 있으나 이 불상들의 造成 배경과 당시 주변 환경 등의 고찰이 미진함으로 이러한 불상에 대해서도 현지를 찾아 문헌과 口傳등을 참고하고 實物을

세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도 또한 의무로 느껴진다.

셋째,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불상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와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안다. 고대의 일본불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영향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문제이며 일본적인 양식과 수법이 유행된 속에서도 한국적인 영향을 다소라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모두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불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論題에 따라 몇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역시 本稿는 試論이므로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현지 답사에서 얻어진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충실한 내용의 論文 작성을 약속하는 바이다.



〈사진 1〉奈良 東大寺 金銅釋迦誕生佛과 灌佛盤



〈사진 2〉金銅釋迦誕生佛과 灌佛盤(日本東京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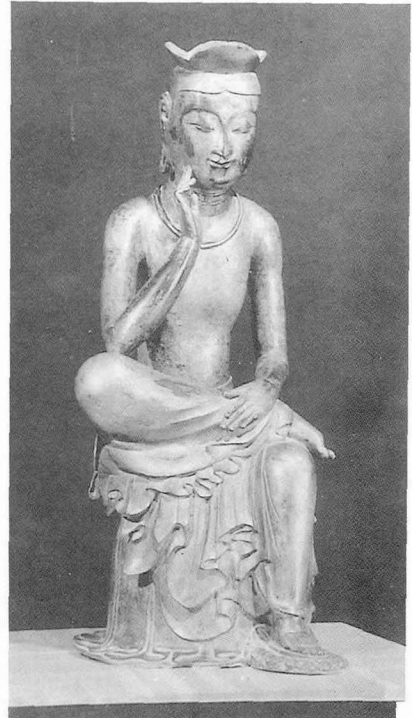
〈사진 3〉日本 滋賀縣 石塔寺의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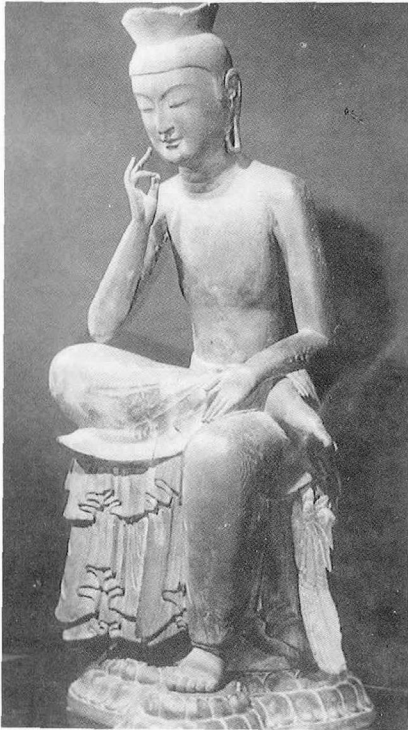
〈사진 4〉對馬島 峰町 海神社所藏 金銅如來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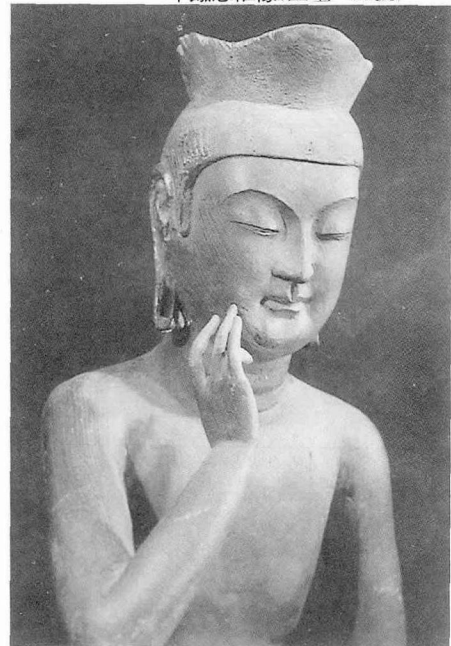
〈사진 5〉 對馬島 美津島町 黒瀨公民館所藏 金銅如來坐像



〈사진 7〉 國立中央博物館所藏 金銅彌勒菩薩
半跏思惟像(國寶·83號)



〈사진 6-①〉 廣隆寺 木造 半跏思惟像



〈사진 6-②〉 同像의 相好와 右手指印

〈사진 8-①〉
對馬島 淨林寺 發見 金銅半跏像



〈사진 8-②〉 同像의 뒷면과 右側面



〈사진 8-③〉 銅像의 左側面



〈사진 9-①〉 扶餘 扶蘇山出土 半跏石像



〈사진 9-②〉 同像의 뒷면



〈사진 9-③〉 同像의 右側面



〈사진 9-④〉 同像의 左側面

〈사진 10-①〉
觀松院所藏 金銅半跏像



〈사진 10-②〉 同像의 右側面



〈사진 10-③〉 同像의 左側面



〈사진 11-①〉 松田 光氏所藏 金銅半跏思惟像



〈사진 11-③〉 同像의 左側面



〈사진 11-②〉 同像의 右側面



〈사진 12〉
船形山神社의
金銅菩薩立像



〈사진 14〉
飛鳥寺 大佛



〈사진 15〉
飛鳥寺 大佛의 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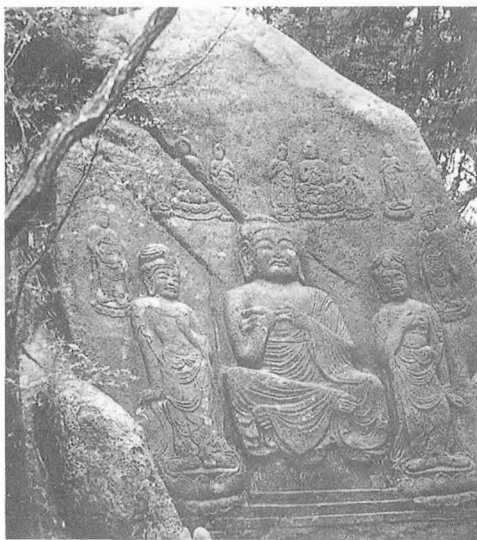
〈사진 13〉
關山神社의 金銅菩薩
立像



〈사진 16〉 瑞山 磨崖三尊佛



〈사진 17〉 軍守里 石造如來坐像



〈사진 18-①〉 滋賀縣 金勝山 拍板廢寺址의 磨崖佛(1)



〈사진 18-②〉 滋賀縣 金勝山 拍板廢寺址의 磨崖佛(2)



〈사진 18-③〉 同主尊 三尊佛



〈사진 18-④〉 同上部의 三尊과 菩薩들



〈사진 19〉 慶州 南山七佛庵 磨崖石佛



〈사진 20〉 善光寺 金銅三尊佛



〈사진 21〉 法隆寺 金堂內 金銅三尊佛



〈사진 22〉 神奈川縣 圓覺社 金銅三尊佛



〈사진 23〉 辛卯銘 金銅三尊立像



〈사진 24〉 癸未銘 金銅三尊立像



〈사진 25〉 石位寺 三尊石佛



〈사진 26〉 石位寺 三尊石佛의 本尊倚像



〈사진 27〉慶州三花嶺三尊石佛의 本尊像



〈사진 28〉法住寺 摩崖 如來倚像



〈사진 29〉頭塔藥師三尊石佛



〈사진 30〉大谷寺 阿彌陀三尊磨崖佛



〈사진 31〉 泰安 磨崖三尊佛像



〈사진 32〉 榮州可興里 磨崖三尊佛像